

특별기획

선배는 끌고 후배는 따르고

익산 사회복지행정원 새내기 사회복지 공무원 멘티·멘토 결연

군산시 중앙동주민센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군산시 중앙동주민센터는 7일 통장단 부녀회 등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와 전통시장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도심 곳곳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이면도로 불법 주차와 상가 앞 적치물이 난립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가가호호 홍보물을 배부하며 ▲생활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 사용하기 ▲불법 주차·정차 하지 않기 ▲상가 앞 도로에 물통이나 타이어 등 물건 쌓아놓지 않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리에 무단 투기된 불법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와 익산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채수훈)는 7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15~16년 새내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선배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티·멘토 결연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멘티·멘토 결연식은 2013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년째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전국적으로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단 자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선·후배 공무원간 파트너십을 통해 신규사회복지공무원의 조직 적응력을 강화하고 현장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2명의 선·후배 공무원은 멘티·멘토로 결연되어 월1-2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2016년 신규사회복지공무원의 멘티멘토 결연식을 시작으로 읍면동 복지하브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초청강연, 파트너십 훈련, 저녁 만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결연식에 참석한 이지영 부시장은 "사회복지 행정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시민을 최일선에서 돕고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보람도 크지만 고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후배 공무원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배공무원은 다양한 경험에서 우려나오는 소중한 지혜를 후배공무원은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서로 돕는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익산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아 부회장은 "멘티멘토 결연식을 통해 선·후배 사회복지공무원이 끈끈한 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 기쁘다.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품격 있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중 광둥성 청위안시 대표단 군산시 방문

중국 광둥성 청위안시 허궈쥘(何國森)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6일과 7일 군산을 방문했다.

이번 청위안시 대표단 방문은 지난 2014년 3월 정식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된 이후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군산시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새민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한중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군산과 새민금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허궈쥘 부시장은 방문 첫 날인 6일 오후 군산시청을 방문해 문봉신 군산 시장을 만나 경제, 교육, 관광, 의료분야 협력사업 전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을 교환했다.

7일에는 중국 광둥성 부성장 등 정 부인사 및 기업대표단을 대상으로 새민금개발청에서 개최한 새민금지원 경제설명회에 참석해 새민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위안시 상무위원회 부주임 일행이 군산을 내방한 바 있으며, 올해 6월에는 군산시 의회에 청위안시를 방문해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중국 내 13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해 상호 활발한 우호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서 특별승진 임용식 개최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6일 전북경찰청 상반기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정보보안과 이정보문 순경이 정장으로 특진했다.

이정보문 경장은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총 220회 체증 전담근무자로 활동하며 변수 없는 현장관리 등 완벽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전년도 정보종합성과 평가 1위에 기여한 유공으로 전북청 상반기 특별승진 임용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승진임용식에는 가족, 동료, 선배배들이 모두 참석하여 축하와 기쁨을 나누며 승진의 의미를 더했다.

이정보문 경장은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민생차단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하림 '더 건강한 순살찜닭' 출시

오늘부터 GS리테일 운영 GS수퍼마켓 전 지점에서 판매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자연실록 더 건강한 순살찜닭을 8일부터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 단독으로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하림 자연실록 더 건강한 순살찜닭은 하림이 직접 개발한 깊은 풍부한 맛의 찜닭 소스가 부드러운 닭고기에 고루 버무려져 있어 누구나 편에 붓고 익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엄격하게 키운 100% 국내산 친환경 닭고기로 만들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림 자연실록 더 건강한 순살찜닭은 8일부터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 전 지점에서 판매된다.

하림이 개발한 특제 찜닭 소스는 맵고 짠 맛이 아니라 본연의 닭 맛을 살리면서도 풍미를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수 있어 손질 부담 없이 요리도 손색이 없다.

은 여름, 간편하게 입맛 살리고 건강도 챙기는 알찬 별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살 닭고기만을 사용해 뼈를 발라내야 하는 수고로움과 인내가 묻는 불편함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개인 취향에 따라 각종 채소나 당면 등을 추가해도 된다. 간편하게 조리해 푸짐하게 내놓을

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이번 신제품은 순살 닭고기라 부드럽고 자체 개발한 찜닭 소스도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라 젊은 층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노년층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며 "무더

하림 자연실록 더 건강한 순살찜닭은 오늘부터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 전 지점에서 판매된다. 가격은 1만2천원대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오는 20일 가족 사랑의 날을 맞이해 건강한 가족을 이문화화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가족 사랑의 날에는 우리가족 펜시우드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의 창의적인 생각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8세 이상 자녀를 둔 군산시 거주 가정(3인 이상 가구)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gunsanfc.familynet.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대상자 선발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가정 및 온가족구성원 참여가정이 우선 선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443-530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창업지원단 3D프린팅 창업자 20명 교육 수료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백현기)은 전북 중소기업청 3D프린팅 제품제작 및 디자인 관련분야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2주간(60시간)의 교육일정을 마치고 최우수수료자를 가졌다.

또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공동 협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공동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향후 아이디어 사업화 신청시 가점부여와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앞으로도

일반인 실천형 창업강좌로 9월 SNS 창업강좌와 11월 무역관련 창업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1학과 1기업 창업과 창업동아리, 창업 장학금, 창업 강좌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군인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원광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3D프린터 운용교육 전문강사 양성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걸쳐 3D프린터 운용교육 전문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3D프린팅 전문 기술 함양과 기술 응용 기회 제공으로 향후 3D프린팅 산업시대에 대비하고, 전문 강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성공적인 취업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은 3D모델링 작업부터 출력된 조형물의 후처리 가공 실습을 통해 전반적으로 3D프린팅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으며, 3D프린팅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분야별 이론 및 실무 교수 방법 교육을 수료한 후 3D프린터 운용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까지 마쳤다.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마친 김아라(국제통상학부 4학년) 양은 "3D프린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기쁘다며, "3D프린팅 교육과 함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까지 치르는 기회를 얻어 취업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황은희 교수는 "앞으로 3D와 관련된 사업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여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시험에 합격해 취업의 꿈을 꼭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7일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지사장 문태영)와 재난피해 신속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회의실에서 체결된 이날 협약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각종 안전교육 등 상호 협력강화를 통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에 안전한 익산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된 것으로, 오늘 협약에 따라 재난발생 시 인원·장비 지원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소방훈련 등 적극 협력, 직원 응급처치 교육 지원 및 합동점검 등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강원석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종 화재, 재난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지역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장왕원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내부경영성과 평가 전국 1위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이 전국 최우수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전국 부서에 대한 2015년 내부 경영성과 평가 결과 발표했다. 금강사업단은 전국 6개 사업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내부 경영성과 평가는 매출액 달성, 영업이익 달성, 청렴도 향상 노력, 지역사회 공헌, 동반성장 추진 등 공사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들과 국가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에 중요한 평가요소 14개를 평가한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초과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청렴도 향상노력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을 평가하는 동반성장 추진 등 많은 평가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함으로써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

박종만 단장은 "앞으로도 정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농어업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신흥동 고지대 '근대 군산시민의 삶터' 로 조성 추진

군산시 신흥동 고지대에 근대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을 '근대 군산시민의 삶터' 재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윤곽이 나왔다.

시는 지난 8일 '군산 근대마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차 보고회를 열고 당시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신흥동 35·7번지 일원 고지대에 근대소설주재관, 근대생활체험관, 근대문화놀이터,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양원 군산 부시장을 주제로 건축, 디자인, 역사, 관광, 어린이,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근대문화도시 조성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오는 8월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산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근대마을은 고지대 불광역까지 정비사업으로 매입된 신흥동 일원 1만㎡ 부지를 근대문화도시와 연계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19년까지 72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국가예산확보 중앙 부처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7일) 국가식품롤러스터 조성사업 등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및 중앙 부처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이날 기재부를 방문해 농업융합예산안과, 산업정보예산과의 사업담당자 및 과장 등을 면담하고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국가식품롤러스터 조성사업(국비 160억), 소스산업화사업(국비 70억),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국비 48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면

서 2017년도 국가예산 지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뒤이어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을 방문해 면담하고 1번국도~국가식품롤러스터 진입램프 개설사업(총사업비 110억),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3.652억), 익산 일반산업단지~연무C 진입도로 개설공사(1,604억) 등의 사업을 설명하고 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장왕원기자